

고린도 전서 5장

우리가 성경 전체를 계속 공부해 가는 가운데, 오늘은 신약에 있는 고린도전서 5장을 공부하겠습니다.

바울은 5장을,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요, 비밀리에 감추어진 것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아는 사실입니다.) 라는 선언으로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음란이 있었습니다. 음란은 포르네아 (Pornea)로써 포르노라는 단어가 여기서 유래된 것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습니다.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 도다! 로마법에 어머니와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그것은 로마법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부인이 필연적으로 어머니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의붓 어머니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나 이교도인들도 그것을 인정치 않았습다. 그것은 그 사회에서 불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교회 안에서 그것을 묵인 하고 그대로 두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잘못된 것입니다.

2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도리어 그것을 자랑으로 여겨 교만하여졌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오만해 졌습니다.) **어찌하여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비통해 하기보다, 오히려 눈물로 통곡했어야 하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로 너희 마음이 찢어질 듯해야 마땅한데도 너희들은 관대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관대함을 도리어 자랑스러이 여기는 듯 합니다. 마치, 우리는 어떤 일이냐, 어떤 상황이든지 다 용납할 수 있고, 이런 악에 대해 관대할 수 있다고 자랑하는 듯 합니다.)

그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바울은 이러한 악행을 행하고 있는 자들을 교회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합니다.

3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않지만,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거기에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몸은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이러한 관계 속에 살고 있는 그 자를 내가 마치 거기 있는 것처럼 내가 이미 판단하였습니다.

4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5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그 자를 분리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자를 교회 안에서 교제하지 못하도록 쫓아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자의 육신의 파멸을 위해 사단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도 (디모데전서 1:20) 후매내오와 알렉산더, 두 사람에게 관하여 말하기를, 내가 사단에게 내어 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뉘엿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른 믿는 자들로부터 기이한 보호하심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지체는 이행해야할 기능을 가졌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지체는 다 귀중합니다.

바울이 12장에서 언급하겠지만, 우리는 몸에서부터 분리되어서는 실제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귀가 눈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 힘이 되고, 서로 격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강해지고 능력이 생겨납니다.

몸에서부터 분리된 사람은, 그를 감싸줄 몸의 지원이 없으므로 적에게 노출된 표적이 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에게 내어준다는 개념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교제를 통하여 갖는 힘으로부터 그들을 끊어버리는 것이고 또 그들이 교제로부터 끊어지므로 인해 그들이 범하고 있는 죄에 대한 최대의 영향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바라보면, 그리스도인의 영향으로 인해 크게 축복 받은 사회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영향이 없었다면, 우리는 무기력해질 대로 약해졌을 것이며, 만약 미국에 그리스도인의 영향이 없었다면, 현재 상태보다 훨씬 못한 형편에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직도 이곳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영향 때문에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 안에는 국가와 약화되어가고 있는 나라의 상태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는 믿음의 경건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감사치도 아니하고 인정하지도 아니합니다. 일단 그리스도인의 영향이 제거되면, 모든 지옥문을 열어놓는 것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의 교회를 이 세상에서부터 취하여 가실 그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 순간 흉악한 자가 나타나 그의 거짓 능력과 기적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세상을 곧바로 그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큰 환난의 기간으로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최대의 심판이 세상에 임하지 못하게 지지하는 것이 제거될 때까지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되고 적그리스도에 대해 계시된 모든 일들이 나타날 것이며 그 후에 하나님의 대 심판, 곧 대 환난이 지구 위에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강한 그리스도인의 영향이 있는 사회에서 사는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힘을 얻는 교제의 가치 또한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를 고무하면서 돕는 도움을 말합니다. 그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몸 전체가 주는 이러한 힘과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적의 공격에 훨씬 더 노출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이런 종류의 행위를 범하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절단되어야 하고 이런 육신적 삶을 멀하게 하기 위해 사단에게 내어주라고 합니다. 육신에 의해 지배되는 삶, 하나님의 명령에 공공연하게 반항하는 삶, 이런 근친상간의 관계로 육신을 따라 사는 그를, 내가 거기에 있지 않으나 내가 이미 판단하였노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와 나의 영이 함께 모인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넘겨주어 그 육신은 멸망케 하여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가 고립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부터 격리되는 것이 어떠한지를 알게되면, 그는 회개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그를 회개하게 하고, 그가 회개하므로 다시 교제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갈라디아서 6:1)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바울의 두 번째 편지에 보면, 성경에 기록된 두 번째 것,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또 다른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9절에서 언급합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응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다른 서신에서 이러한 문제를 벌써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린도후서에서는,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그를 다시 교제 안으로 받아드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를 다시 교제 안으로 데리고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를 고립시키는 근본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교제로부터 떨어져서 산다는 것이 어떠한지를 경험케 하여 회개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목적은 그의 궁극적인 구원, 즉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가 다시금 복원되어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을 수 있게 되는데, 만약 그가 근친상간의 관계에 있다가 죽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다음의 장으로 내려가면,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원문에는 장의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9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자들을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멸망을 위해 사단에게 내어주게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그가 회개하여 죄를 버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교제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교제 안으로 돌아오게 함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입니다.

이제 **6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이것에 대한 너희의 자랑,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러한 죄악을 받아 줄 수 있다는 그러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 **옳지 아니하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 말씀에 나오는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성경말씀에(갈라디아서 5:9),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느니라 고 합니다. 누룩을 오늘날 우리는 스타터(발효용 배양균)로 부릅니다. 효모 빵에는 그 스타터를 넣는데, 항상 반죽한 한 덩어리를 떼어놓았다가, 그것을 새 덩어리에 넣습니다. 당신이 반죽에 집어넣은 그 적은 한 스타터로 인해 냄비에 있는 반죽 전체가 발효되기까지 새 반죽 전체에 퍼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스타터를 빵 덩어리에서 빵 덩어리로 혹은 반죽에서 반죽으로 그것을 영존시키기 위해 보존합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효모 빵은 49축구단의 창단 전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빵이 그렇게 유명하다고들 하지만, 사실 그것은 누룩이 퍼지는 전체과정의 부분입니다. 적은 것이 스며들어 냄비전체의 반죽으로 번져갑니다. 이것이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부풀어 오르는 이유는 누룩이 부패하면서 이 빵을 발효시킬 때에 내뿜는 가스로 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스타터는 일종의 썩은 것이고, 이것이 발효하면서 가스를 뿜어내어 빵을 부풀게 하므로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고 좋게 만듭니다. 이것은 많은 것이 요구 되는게 아닙니다. 단지 적은 스타터가 반죽 덩어리에 들어감으로서 반죽 전체에 번져갑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집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한 작은 죄를 허용하는 것이 온 교회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여호수아 7장) 아간의 예를 보면,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여리고를 너희가 차지할 때, 그것은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리고의 모든 약탈품은 내 것이다. 다른 도시에서 착취한 모든 약탈품은 너희가 가져도 되나 여리고의 약탈품은 나의 것이다. 너희들은 그것들을 만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함락했을 때, 그 약탈품들을 레위 지파에게 가져 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군들로 임명된 레위 지파에게 맡겨졌고, 장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에서 작은 아이(Ai)라는 도시를 정복키 위해 언덕으로 올라가 정탐케 했습니다. 그들의 성문은 여리고의 성문에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작았고, 그들의 군대도 여리고의 군대보다 강하지 않았습다. 사실 여리고의 전쟁에서 승승 장부한 때라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길,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 단번에 물리치고 모든 약탈품을 갖고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이를 치러 갔고 아이의 군대도 맞서 싸우러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도망하기 시작했고, 그들 중 여럿은 살해되었으며, 그들은 아이의 군대에 의해 패배하여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는 격분하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기를,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우리를 대적케 하시나이까?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있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왜 나에게 부르짖느냐? 너희 진영에 죄가 있도다. 그래서 그들은 진영의 수를 계산하여 지파대로 나오게 하여 결국은 아간에게 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하길, 네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자백하라. 그리하여 아간은 자기의 죄를 자백합니다. 아간이 바벨론 의복의 아름다움을 보았을 때 탐이 나서 가져다 숨겼음을 자백했습니다. 그러나 아간의 죄악이 하나님의 모든 진영을 괴롭게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그들의 적에게 패배를 당하게 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니라.

하나님께서서는 교회 안에서의 청결함을 원합니다. 초대 교회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교회 안에 청결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청결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사도행전 5장 1-11절).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가 그들의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허위를 만들어 외식하며(외식의 누룩) 나아왔습니다. 사실은 필요한 때를 위해 비밀리에 얼마를 은행에 저축하고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치는 양 허위를 만들었습니다. 아나니아가 그의 몫을 드릴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것이 네가 판 모든 것이냐? 아나니아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어찌하여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느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느니라! 그리고는 아나니아는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길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냐? 예, 내 땅입니다. 어느 누가 그 땅을 팔라고 했느냐? 아니오. 네가 그 땅을 팔았을 때 어느 누가 그것의 전부를 다 드리라고 했느냐? 아니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드렸다고 허위 보고를 만드느냐? 또한 이 계약에 함께한 그의 아내도 후에 나와 같은 거짓을 말하니 그녀 역시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 교회의 청결함을 보호하셨습니다. 교회의 청결함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여기서 이러한 일을 참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조그마한 불순이 몸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몸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순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묵인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단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게 하는 데 충분합니다.

7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묵은 누룩 곧 죄를 제거하라, 그래서 순수한, 누룩 없는, 아무 죄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는 문맥 안에서 바울은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를 연관짓고 있습니다.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는 방법은 우리의 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 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지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상하셨습니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생양이시며, 우리의 유월절이 되십니다. 이것은 누룩 없는 빵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출애굽기 12:1-30절의 유월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에게 이르되, 이 달의 십일째 되는 날 흠 없고 일년 된 양을 취하라고 명하시고, 그것을 같은 달 십사일까지 간수하였다가, 그 양을 잡아, 그 피를 취하여 자기들이 그것을 먹을 집들의 양쪽 문기둥과 문 윗 기둥에다 뿌리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칠 것이나, 만일 양쪽 문기둥과 문 윗 기둥의 피를 보면, 내가 그 집을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않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Passover)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그 집을 건너 넘어 그 장자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그 어린 양 고기를 먹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모두 불로 태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빵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급히 그곳을 떠나야 할 것이기 때문에 빵을 부풀게 할 시간이 없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누룩 없는 빵을 그냥 먹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시종일관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것으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주께서 그에게 명하셨던 대로 백성들에게 명했습니다. 유월절 그 밤에 주께서 애굽 땅을 지나가실 때 문 설주에 피가 없는 모든 집은 그 집의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그 땅의 객의 장자까지도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 피로 보호받지 못한 집들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집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후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 그 곳을 떠나라고 하며, 모세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모든 회중은 허리에 띠를 띠고 갈 준비를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떠나 나왔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그 달을 해의 첫째 달이 되게 하시고 그 달 십사일을 유월절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해의 첫째 달의 십사일이 유월절이고, 그 다음날은 무교절로 칠 일간 계속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후 곧 바로 연이어 있는 무교절과 함께 총 팔 일간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그리고 칠 일간이 무교절인데, 무교절의 첫 날과 마지막 날이 안식일이 되어야 했습니다. 각 사람이 먹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오직 이 날은 휴식의 날, 주께 안식일이여야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관한 답을 우리에게 준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관례적으로 카톨릭교에서는 그날을 성 금요일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나는 예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처형되었다고 믿지

않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것을 보면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고 죄수들의 죽음을 서두른 것에 대해 말합니다. 요한은 그 안식일은 큰 날(high Sabbath)이라고 특별히 기록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특별한 안식일, 즉 유월절 다음에 자연히 따라오는 날은 무교절의 첫 날이고, 그날은 안식일로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겹치게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 큰 안식일이 금요일이었으면, 토요일은 정기적인 안식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주의 첫 날 이른 아침까지 무덤에 올 수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유월절 날 십자가 처형이 있었고, 그 다음 날 무교절의 첫 날인 안식일이 곧 이어졌으며, 그 다음 날은 물론 정기적인 안식일 날인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맞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밤낮 사흘을 땅 속에 계셨다는 것에 맞아들어 갑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답이 됩니다.

이 절기들은 그들의 자손 세대에 걸쳐 그 날들을 기념하여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은 그들의 역사에서 가장 중대한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그 나라가 존재하는 한 기억해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이 계속해서 기억할 것을 의도하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다시 상징적으로 말하면, 애굽은 죄에 노예가 되어있는 인간을 상징하고, 그들이애굽에서 구원받아 홍해를 건너는 것은 물 침례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생활에서 구원받는 것과 같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바울이 말하기를 침례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물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 광야를 통과하며 여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도 편안한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타국인들이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통과하고 있지만,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왕국 시대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광야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공급해 주시며, 보호해 주셨는지를 볼 때에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예징(豫徵)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과 눈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절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자주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부터의 그들의 구원은 그들이 끊임없이 기억해야 할 국가 역사상 가장 중대한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교회나 세계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역사에 있어서 그것보다 더 의미있고 중대한 사건이 역사적인 기록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양으로서 자신을 주셨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죽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유월절 양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당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장자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 어린 양이 희생당한 것처럼 우리의 유월절 양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 당하셨습니다.

주께서 유월절 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어떤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한 날의 시작은 해질 때부터입니다. 그들은 해가 지자마자 새 날이 시작된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날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과 그들의 달력으로는 해지는 때에 시작하여 다음 날 해 질 때까지를 하루로 여기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날이 유월절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는, 제자들과 함께 깃세마네 동산으로 가셨고, 그 곳에서 예수님이 잡히신 후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 날 새벽에 빌라도에게 넘겨졌고, 정죄 당하셨으며, 십자가 처형을 받기 위해 넘겨지셨습니다. 오전 9시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려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날 거기 매달려 있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예수님은 무덤에 계셨고, 그 날 밤과, 그 다음 날 밤과, 그 다음 날 밤까지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의 첫째 날 새벽에 그들은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이 전체가 상징하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누룩, 곧 죄를 깨끗케 하시기 위하여 그의 피를 흘리셨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공동체 안에서든 적은 누룩이 온 전체에 퍼지게 되는게 사실이지만, 개인적으로도 당신의 삶 가운데 작은 죄를 허용할 때, 이것이 퍼지게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단 또는 악과 협상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고 하셨습니다.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하여 그것을 씻으시고, 깨끗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으시고, 깨끗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녁 여기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여, 우리를 씻으시고, 깨끗케 하시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아직도 우리의 욕이 지배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심은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깨끗케 해주실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깨끗케 하신다는 개념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부터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8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목은 누룩도 말고 피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깨끗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제 바울은 이전에 쓴 편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9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10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 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근친상간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을 허용하고 있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장에는 바울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사귀치는 사람들을 다룰 것입니다. 그들은 악탈(토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다음 장에서 이것을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술취함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쓰레기로 꼭 차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세상 조각입니다. 그런 음탕함, 음탕한 방종으로부터 당신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15절)에 예수님이 하신 위대한 기도에서, 아버지!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옵고, 그들을 세상에서(악한 자) 보호해 주시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배는 물에서 항해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배가 물에서 항해를 하는 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 우리는 세상에서부터 달아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당신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때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당신 속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당신은 매우 위험하고 불안정한 자리에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11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람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나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런 사람들과는 교제를 하지 마십시오. 이전에도 언급한 것같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력을 갖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가치를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들의 문화적 관념으로는, 어떤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하나가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식사하는 것이 서로가 아주 귀중하고, 가깝고, 하나가 되는 것으로 보아왔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먹는 방법에 있습니다. 그들은 식사를 할 때 각자의 그릇과 수저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국 과 샐러드와 소소스를 공동으로 먹기 때문에 식사가 끝나갈 때면 식탁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의 세균들을 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가 끝나갈 때가 되면 당신이 가졌던 것을 그들도 갖고, 그들이 가졌던 것을 당신도 갖게 되어 하나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한 조각의 빵을 떼어 소소스에 찍어서 한입 뜯어먹은 후 그것을 또 다시 소소스에 찍어서 먹습니다. 두 번 찍어 먹으면 안 된다는 법도 없습니다. 그 빵을 국에다 적셔서 먹고는 다시 그것을 국에 적셔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식사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것을 통해 하나가 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에 대해 까다롭다면, 당신은 최대한의 교제와 사랑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는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예수께서 저들과 식사를 할 수 있을까? 그들은 죄인들이요, 세리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집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이러한 관념들을 조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사실 이것이 분열을 가져 왔고, 이것으로 인해 바울은 베드로를 꾸짖어야 했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을 때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어떤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혼자 떨어져 나와 이방인들과 더 이상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분열을 가져 왔습니다. 바나바도 베드로와 함께 다녔는데, 그도 이 분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베드로에게 그 자신을 분리시켜 혼자 떨어져 있음으로 분열을 조성하는 잘못이 있기에 내가 그를 면책하였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엔 인종이나 국가적 차별이 없습니다. 또한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의 구별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또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바울이 에베소인들에게 참 아름답게 지적한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한때 존재했던 그런 담들을 주께서 허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나누고 분리시키는

담들을 그리스도께서 허셨는데, 우리가 그 담들을 다시 세우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이 연합이 있고, 하나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형제라고 하는 어떤 자가 음행을 하는 자거나, 탐욕하는 자거나, 우상 숭배하는 자거나, 욕설하는 자거나, 술취하는 자거나, 악탈하는 자이거나, 그들과는 하나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그들과 함께 먹는 교제를 가져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에 이런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세상을 떠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순결의 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의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또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라** **13의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나는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규칙을 주지 않을뿐더러 줄 수도 없습니다. 기독교 법률을 제정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마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세상에서는 되어지질 않습니다. 법으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 사람의 심령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진정한 교회의 사역은 법률을 통제하고 나라 안에 의를 법규로 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사역은 죄인들을 회심시키는 것이며, 그들이 회심했을 때 변화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들을 회심시키므로 세상을 이깁니다. 이 세상은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 반항할 것입니다. 의(義)를 법률로 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각 개인의 심령 속에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개개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합니다. 변화된 신자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예전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근친상간 관계에 살고 있는 그 사람에 관한 바울의 마지막 말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고 했습니다. 그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그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은 연단을 위함이지 그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죄의 열매를 경험케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들이 죄 중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다루는 가운데 생기는 문제 중 하나는 그들을 돕고 붙들어 주려고 하다가 도리어 우리가 허용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을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같이 전혀 살 수 없습니다. 그들이 곤경에 빠지면 와서 옵니다.

나는 사역 초창기에 이 교훈을 배웠습니다. 내가 아리조나 주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십대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저녁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그것은 이 청년에게 허락된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척 목사님,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차바퀴가 터져 갈고 있는데 경찰관이 다가와서는 신분증을 요구했고, 나는 무서워 버렸던 많은 주차 위반 호출 기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검거됐고 보증이 있어야 나갈 수 있게 됐으며 50불의 벌금이 부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척 목사님 도와주세요 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 가진 것이 없었기에 어디서 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굶어모아 50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그를 보석금을 주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오! 척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 세상에! 물론 젊은 청년들이 좀 책임감이 없는 것 그리고 어떻게든 사태를 넘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해 하기는 합니다만 말입니다. 얼마 안 되어서 이런 종류의 전화를 자정에 또 받았습니다. 오! 척 목사님! 이번에는 제과점 트럭이었습니다. 잠그지 않은 트럭에 빵들이 너무나 맛있게 보였고, 그는 트럭에서 빵을 훔치다가 잡혔는데, 벌금이 100불이나 됐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불쌍한 그를 무서운 사람들과 함께 감옥에서 밤을 지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그런 문제는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은 차였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구해 줌으로서 이러한 일을 계속 하도록 그를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경험을 통해 교훈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가 경험을 통해 교훈을 배우도록 도와주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그들의 죄의 결과로부터 구해주려는 것이 오히려 죄를 계속하도록 도와주거나, 어떤 면에서는 죄를 격려해 주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내가 전화만 하면 그는 나를 구제해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그를 교제하지 못하게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끊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악한 사람은 몸 전체를 위해서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라고 합니다. 만약 그를 너희 가운데 그대로 둔다면, 그는 몸 안에 누룩이 됩니다. 그러면 곧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사람이 악한 일을 하되 아무도 그것에 대해 아무 말을 하지 않으므로 괜찮은 것이라고 여기고는 방종한 태도로 교회 안에 파고들어 전 교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성경적인 표준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말하겠지만 그것은 효과적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교훈을 배웠으니, 이제는 그를 교제 안으로 다시 데리고 오라, 저가 교제의 결핍으로 멸망할까

하노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잘된 일입니다. 그것은 기대했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교제의 관계를 끊으므로 그는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말씀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당신의 길과 당신의 진리 가운데로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으로부터 악을 제거하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갑자기 생각나는 것은 몸이 너무나 약하여져서 신체가 독을 제거할 수 없을 때, 몸은 곧 죽게될 것입니다. 몸이 매우 연약하여 신체조직이 더 이상 독을 제거할 수 없을 때, 죽음은 임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거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아주 강하게 임재하셔서, 누구든지 그들의 죄 가운데 와서 있는 것이 불편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우리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누룩이 제거되어, 예수께서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리 가운데서 외식함이 없이 진실하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죄를 지시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유월절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주께서 빛을 다 갹으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자유 합니다!